

1등 (혹은 2등): 1894~2014년간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선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교 교수

역사적으로 부침이 있었지만 사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150여 년 동안 상당히 일관적이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기점으로 미국이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고 동시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태평양에서 잠재적인 패권 경쟁 구도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황색 언론과 대중의 막연한 인종주의적 공포에 기인한 바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워싱턴 해군 회의로 일본이 다시금 영미 국제 체제 내에서 하급 동반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1920년대까지, 아니 193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은 (미국과의 대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군부의 인식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세계 체제를 묵인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태평양전쟁 시기의 일본의 모습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 니체의 '계보'와 '생성'이라는 개념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몇 기의 시기를 통해 서구인들의 인식에 '일본'이라는 어떤 특정한 관념이 생성되었고, 그와 동시에 '2등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이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세계 체제 내에서 격렬한 경제 전쟁과 산업 경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즉, 서구인들이 가진 '일본'과 '중국'이라는 관념의 부침은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서구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변주 과정인 것이다. 니체와 벤야민을 인용했던 푸코의 논지를 다시 빌리자면, 역사란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발굴하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 아니라 존재론적 인식을 우선 가진 상태로 행해지는 주관적 과정이며, 그 와중에 기존 담론의 상실과 말소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혹은 그것을 관통하는 일관성 역시 이러한 계보와 생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미국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동기"를 바탕으로 "인식하지 못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현실에서도 상당 부분 구현되었던 케넌과 애치슨의 일본 부흥 계획은 간헐적인 적대 관계를 압도하는 미일 관계의 태생적인 친밀감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이 역시 1960년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의 경제적 부흥으로 또 다른 생성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는 1980년대 말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와 함께, 더 정확히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더불어 (유럽의 나토 체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부실한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적 제도와 규범은 미국이 여전히 양자적 동맹 체제 속에서 동아시아 외교를 꾸려나가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전후 합의를 통해 스스로 창출한 구조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 역시 그런 구조 속에서 상대적 이익과 혜택을 누리면서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만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더욱이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역사와 민족, 영토 문제는 이러한 미국 중심의 비대칭적 다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 정부는 당파와 무관하게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현상 타파를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능력도 없으며 (수사와는 별개로) 그럴 필요성이나 위기 역시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북아의 해묵은 역사

문제로 최근 집권한 각국 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는 1등, 자신과의 위치에서는 2등으로서 일본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뜻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미일 관계, 태평양, 패권, 해군력, 동아시아 국제정치, 니체, 푸코, 계보, 생성, 동맹, 역사 갈등

I. 들어가며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점은 지난 150년간 상당히 일관적이었다. “난학(蘭學)”과 더불어 수 세기 동안 일본에 퍼져나갔던 서구의 다른 요소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1853년 이전에는 일본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매슈 페리(Matthew Perry) 제독의 “흑선(黑船)”이 도래한 이후로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게 잇달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아마도 중국인들에 대해 짐작했던 것처럼) “나태하고 굶픈” 동양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근면한 동양인들이 여기 있었고, 그들은 허송세월하는 대신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급속 혁명”을 거친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고립되고, 배타적이고, 경직적이며 보수적이었던 국가는 하루아침에 “가장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인 헨리 M. 필드가 1877년에 내린 이러한 평가(Iriye, 1972: 13-14; Field를 재인용)는 페리 이후 미국인들의 대체적인 견해가 되었다. “일본인들은 다르다. 그들은 놀랍다. 그들은 특별하다. 그들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들은 위협하다.”¹

그리고 거의 그 다음 한 세기 동안,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을 때까지 미-일 관계는 호감과 더불어 전쟁의 징후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리 제독이 덴노에게 전달했던 밀러드 필모어(Millard Fillmore) 대통령의 친서는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미합중국은 한 대양에서 또 다른 대양에 걸쳐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1854년 두 번째 방문에 페리 제독은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직전 전쟁에서 미군이 멕시코의 수도를 점령했었

¹ 내 독자들은 내가 이 논문의 일부를 이전 저작에서 따왔음을 눈치 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와 말을 전한다. 다만 이 회의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저작들에서 가능한 한 회의 주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인용하고자 했다.

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페리 제독은 “상황에 따라서는 귀국 또한 유사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마침내, 1854년 3월 31일 페리는 이른바 “수호통상” 협약이라고 일컫는 가나가와조약(神奈川條約)을 맺는 데 성공했다(Bryant, 1947: 277-79; Perry, 1856: 235, 238).²

페리와 선원들은, 남녀가 벌거벗은 채로 뒤섞여 씻는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아무튼 공중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뽀득거리도록 때를 밀고 몸을 씻는 모습을 보았다. 관리들은 ‘사케(酒)’라고 하는 쌀로 빚은 술을 주로 마셨는데 미국산 위스키에도 금세 맛을 들여 고주망태가 되기 십상이었다. 신이 나서 왁자지껄 떠드는 중에 그들은 “일본과 미국은 일심동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가난의 징후는 있었지만 “거리에 걸인들의 모습은 띄지 않았”고 남자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극도로 정중했으며” 여성들은 “음탕과 방종”의 기색이 전혀 없이 정숙했다. 일본의 가정은 수수하고 단출했지만 “언제나 빈틈없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페리(1856)와 그의 부하들은 일본이 “동양 모든 국가들 중에 가장 도덕적이고 개명한 국가”라는 데에 동의했고 이러한 평가는 1930년대에 또 다른 정형화된 일본인상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후 거의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곧 남북전쟁에 여념이 없어졌고 동아시아에 관한 진지한 관심은 1890년대가 되어서야 되살아났다. 1894년은 한국에게는 상서로운 해였을 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는 그렇지 않았다.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은 임기(1897~1901) 동안 미국 상품의 판로가 될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야심에 불타고 있었고 실제로 대중국 수출은 1895~1905년 기간 동안 세 배 이상 늘어나면서 3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수출은 남부의 면화 생산자들이 주도했고 중국의 자강개혁파 지도자였던 리홍장(李鴻章)이 1896년에 미국을 순방하기로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는 곳마다 정·재계로부터 환영을 받기는 했지만, 리홍장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막중한 과제에는 걸맞지 않았다. 그는 미 해군의 유명한 백색 대함대(the Great White Fleet)를 사열하

² 히로시 미타니의 훌륭한 저서는 일본인의 눈에 페리와 그의 전쟁 위협이 어떻게 보였는지 잘 보여준다(Mitani, 2006: 187-89).

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비가 온다는 이유로 배에서 내려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하는 것도 거절했으며, 마차 문에 손가락이 끼었던 날에는 당일 행사를 모두 취소해버렸고, 시종이 낮잠을 자는 그를 깨우기가 두려워하는 바람에 조선소 방문 일정도 놓쳐버렸다. 그의 방문은 취약한 양국 관계를 은유하는 것이었다. 근본적 문제는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1912년에 이르면 대중 수출은 미국의 전체 교역량 중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2400만 달러로 다시 주저앉게 된다.

동아시아 전략을 진지하게 발전시켰던 사람은 매킨리의 후임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였다. 그의 전략은, 쇠약하고 몰락하는 제국이었던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아바나 항에서 일어난 메인(Maine) 호 침몰 사건은 우유부단하고, 근심에 잠 못 이루고, 수척해진 매킨리가 마침내 루스벨트, 헨리 캐벗 롯지(Henry Cabot Lodge), 화이트로 리드(Whitelaw Reid)와 그의 동료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전쟁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루스벨트가 친해군파였던 데다 당시 새롭게 증편되었던 해군 역시 유능했기에 강력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Musicant, 1998: 117, 125, 137-40, 144). 마닐라에서 스페인 함대를 상대로 펼쳤던 조지 듀이(Georgy Dewey) 제독의 결정적 공격은 미국의 애국적 대중들에게 또 한 번 번개 같은 승리를 안겨주었고 태평양에서 스페인 제국에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다. 물론 (이 전쟁의 대부분의 경우와 더불어) 이 전투에서 듀이와 루스벨트가 탁월했던 것인지 스페인군이 무능했던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매킨리는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공식적 제국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메인 호 사건이 그를 전쟁으로 끌고 들어갔다. 듀이의 승전 이후 그는 마닐라에 지상군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이어서 루손(Luzon)도 미국령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듀이의 말에 따르면) “통치가 불가능한 것 같았”고 마침내 대통령은 필리핀군도 전체를 식민지화하도록 승인했다. 1898년 10월, 그는 “미합중국이 필리핀에 대해 어떤 방침을 선호하는지와는 무관하게 필리핀을 그저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전반적 분위기가 있다(Healy, 1970: 62-65; LaFeber, 1989: 190)”고 언급했다. 결국 미국은 3년에 걸쳐, 매킨리를 포함해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고된

게릴라전에 발이 묶였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은 공식적인 제국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

1901년 9월 매킨리가 암살당하면서 루스벨트가 권좌에 오른다. 그는 권력 정치를 신봉하는 능란한 수완가였으며, 그의 임기는 공고롭게도 세계에 대한 미국만의 독특한 기질을 형성하기 시작한 핵심적인 인사들의 부상과 맞물렸다.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헤이(John Hay), 엘리후 루트(Elihu Root), 헨리 캐벗 롯지(Henry Cabot Lodge), 해군전략가 앨프레드 T. 마한(Alfred T. Mahan), (골드러시로 백만장자가 된 테리어스 욱든 밀스의 사위이자 『뉴욕 트리뷴』의 발행인이었던) 화이트로 리드(Whitelaw Reid), 그리고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이라는 이름의 학자가 있었다. 이들은 유럽을 탈피하여 (공백지라고 여겼던) 아시아와 중미를 향해 팽창해야 한다는 19세기의 금언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었지만 세계 속에서 미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다. 미국은 새로움의 체현이고 반면 유럽은 낡음의 화신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가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스벨트는 순수한 의미에서 미국적 국가주의자였고, 자국의 본질적 선량함을 신봉하는 골수 애국파였다. (그에게 스페인과의 충돌은 19세기에 일어났던 “모든 대외 전쟁 중 가장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것”이었다.) 그는 제국주의자였지만 (유럽식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해야 한다는) 미국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는 당대 최고의 제국주의자였다. 그 역시 동시대인들처럼 인종적 선입견과 앵글로-색슨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이 일본인들에 대한 그의 지극한 찬탄을 가로막지는 않았으며 그는 자주 조잡한 인종적 편협성을 비판했다. 루스벨트는 적절한 무력의 사용과 세력 균형의 가치를 믿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였다. 그만큼 훌륭한 정치가를 찾으려면 이전으로는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 이후로는 그의 친척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까지 가야 한다. 그가 단지 대서양주의자(Atlanticist)에 불과했던 것도 아니다. 물론 대서양주의자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교육과 여행 때문이었지 기질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공히 강대국의 역할을 맡는 미국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대형 해군 설립을 계획했던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나아가 그는 태평양을 미국이 자력으로 강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장으로 보았던 첫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는 1900년 10월에 “나는 미국이 태평양 방면에서 지배적인 강대국이 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라고 썼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세기가 동트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상에 존재했던 그 어느 나라보다 위대한 공화국, 서방의 이 거인이 국가의 위대함을 겨루는 경주에서 공정하게 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Beale, 1956: 81, 159, Roosevelt 재인용).” 그의 꿈을 가로막는 단 하나의 심각한 장애물은 일본 해군이였다.

그의 세계관은 미국이 문명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사회적 다윈주의, 그리고 세기말에 만연했던, 인종이라는 관점을 통해 인간사를 바라보았던 애석한 경향이 뒤섞인 것이였다(Slotkin, 1998: 36-40; Linderman, 1974: 106). 물론 그런 관점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줄 수 있다. 미국이 (당시에 실제로 그러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강대국이라면 앵글로-색슨 인종과 그들의 정력적 속성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마땅했다. 일본이 부상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병자”라면 일본인은 진보적이고 정력적인 인종이며 중국인들은 그 반대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인종인 것이였다(그렇기에 1905년에 루스벨트는 문명화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령으로 편입하는 결정을 기꺼이 수용했고, 1902년 영-일 동맹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일종의 숨은 조인국(signatory)이 되었던 것이다).

루스벨트와 그의 친우들, 특히 헤이와 루지가 보기에 미국이 새롭게 편입한 영토는 전설 속의 동방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닫혀있던, 하지만 이제는 열려야만 할 극동지방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사실상 영토적 식민주의에 종언을 고했다. 식민지를 대신한 것은 ‘문호개방(open door)’이었다. 그것은 부상하는 강대국에게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전략이었다. 식민지란 폐쇄적 경제권역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으며 미국은 스스로 어디에서, 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추잡한 권력 정치 대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계몽 프로그램을 따르자는 외침이 나왔다. 자유의 영토를 확대한다는, 건국기부터 있었던 개념은 이제 새롭게 정의되었다. 영토는 이제 한 대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게 되었다. 문호개방은 식민 강대국들의 재정을 소모시키는 행정, 군사, 치안의 책임 또한 깔끔하게 회피했다.

특히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도자들이, 당시 독보적인 지구적 패권이

었지만 동시에 몰락의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던 대영제국을 미국 체제로 끌어들이는 과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헤이는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당시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영토 일부를 차지하려고 애쓰던 강대국들에 대항하여 중국 통합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이에 관해 영국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다른 국가들을 당혹케 했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은 중국을 칠면조 구이처럼 토막 내서 영구적으로 분단시키고자 했다. 문호개방은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언제나 환상 속의 나라처럼 여겨졌던 중국 시장에 확실한 입지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을 “유능과 무능 사이의 절묘한 수준(Wiebe, 1967: 254; McCormick, 1967: 60-63, 125; *passim*).”에 붙잡아두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중국은 일정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만큼 튼튼해야 했지만 제국들의 침탈을 저항할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20세기의 전반부 동안 중국은 정확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여전히 대서양주의자의 관점이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강대국은 유럽 국가들이며, 제국주의는 철이 지났다가보다는 (국제법이나 국제연맹과 같은 기구가 식민지를 위임통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것이었고, 미국은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되 다른 방식으로, 무엇보다 더 잘하리라는 것이다. 루스벨트가 태평양에서 하나의 강대국, 즉 일본만을 경외했던 것은 그가 지겹도록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군사적 역량과 사무라이의 “남성성(virility)”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 저명한 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위해서는 필리핀이 중요하다는 헛소리를 위엄 있게 펼쳤지만, 이 제국주의와 국제주의자들의 핵심 집단 중에서 화이트로 리드만이 태평양을 “우리 손에” 넣는 문제에서 스페인이 패배했다는 사실의 전략적 중요성을 주장했다.

사실상 우리는 이쪽 해안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샌드위치 군도와 알류산 군도에 중간 거점을 마련했다. 이제 미국의 통치를 필리핀 제도까지 확장하는 것은 중국해를 우리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태평양의 반대편에서도 이쪽과 동등한 정도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태평양에 대한 통제력과 20세기가 목도하게 될 엄청난 교역에 대한 통제력을 배가하는 일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미국이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Healy, 1970: 174).

리드가 대서양주의자인 그의 친구들과 다시 의기투합하면서, 끝을 모르는 미국의 지구적 야심이 태어났다.

1907년 12월, 일본과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경고가 일어나는 와중에 루스벨트는 대서양 함대에 해안을 따라 내려와 혼 곳을 돌아 태평양으로 진출하도록 지시했다. 1905년 러시아가 일본에게 당한 불의의 패배는 루스벨트가 일본의 남자다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과는 별개로 미국의 서해안에 대한 위협의 망령을 일깨웠다. 그리고 일본의 성공을 미국이 모호한 태도로 환영한 것은 그때가 끝이 아니었다. 1905년 허스트(William Randolph Hirst)의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San Francisco Examiner)는 “일본의 소리가 우리 해안에서 들린다.”고 대서특필했다. 또 다른 신문 헤드라인은 “황인들은 지도를 갖고 있으며 손쉽게 상륙할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정말 백인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일본 기업들의 성공이었다. 이는 다양한 반일 시위, 폭력 사건으로 이어졌고 루스벨트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귀화를 허가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는 식으로 애써서 개입해야만 했다. 그가 정말로 심각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의 백인들에게 분노했던 것은 진심이었으며 전국의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군의 투입을 승인하기까지 했다(Limerick, 1987: 271; Saxton, 1971: 254-55).

‘백색 대함대(Great White Fleet)’는 어떤 해군 강국이 했던 것보다 긴 항해를 하면서 각지에 선을 보였다. 비록 미국은 하나의 대양만을 방어할 수 있는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치 두 대양을 제패할 해군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16척의 전함은 항해 도중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칠레의 폰타아레나스 등 가는 곳마다 큰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사건 때문에 일본 방문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16척의 백색 군함은 요코하마 항의 짙은 안개를 가르고 나타나 일본이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성대한 환영회를 맞이했다. 지역 주민들은 앞다투어 나서서 선원들에게 장관을 선사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천 명의 대학생들이 그들을 안내했고 수만 명의 학생들은 미국 노래를 불렀다. 그 사이 고위 장교들은 텐노를 알현하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일본인들의 각별한 환대에 루스벨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일본의

지도자들을 너무나도 경외했기 때문이었다. 포트 아서(Port Arthur, 휘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순식간에 수장시켜버린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의 기습 공격은 이미 대통령에게는 전설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였다. “충을 든 정의로운 사나이”가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는 그의 생각에 걸맞게, 루스벨트는 함대를 통해 일본인들이 미국의 새로운 권능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본은 그때 이미 강력한 해양국가였다. 이렇게 미국 해군이 역량을 과시하는 모습을 감상하기에 딱 적당한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함대가 1909년 2월 햄프턴 로즈(Hampton Roads)에 돌아올 때쯤,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던 루스벨트는 당당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었다. 그는 어떤 전임 대통령보다도 해군에 큰 기여를 했다. 미 해군은 이제 미국의 강력한 전력이었고 1,096명의 장교와 44,5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군이었다(Bryant, 1947: 391; Evans and Peattie, 1997: 12, 60, 147).

II. 일본과의 임박한 전쟁

루스벨트가 일본을 높게 평가한 것과는 별개로,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승리 이후 미국의 팽창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한 문구는 일본이 캘리포니아 침공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호머 리(Homer Lea)라는 괴짜 곱사등이는 『무지의 용기(The Valor of Ignorance)』(1909)라는 책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리는 점증하는 경제 경쟁이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논리를 제시했다.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일본 해군은 세 지점, 워싱턴 주의 치헬리스(Chehalis), 샌프란시스코 만의 고트 섬(Goat Island),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백만 명의 침공 병력을 배치할 것이었다. 상세한 지도와 더불어 헛소리로 가득한 그의 책은 아주 잘 팔렸다. 미군 장교들도 이 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정보참모장이었던 찰스 윌로비(Charles Willoughby)는 1941년에도 여전히 호머 리의 글을 인용하고 있었다. 허스트의 신문은 태평양 연안에 대해 일본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널리 퍼뜨렸고, 심지어 1915년 9월 기사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까지 제시했다. 사

진들은 캘리포니아 해안 상륙 훈련을 하는 일본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나중에 이 사진들은 청일전쟁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신문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일본 철도 노동자들이 헨리 헌팅턴(Henry Huntington)의 ‘붉은 열차(Red Car)’ 철도망을 손에 넣은 다음 일본군 사단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각지로 실어나르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비웃은 미국인들은 “백인 일본놈(white Japs)”이라고 불렀다. 『침략(Invasion)』이라는 제목의 소설은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에게는 악몽의 완결판이었다. 일본의 전투기가 소이탄으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든 다음, 공수부대원들이 “악마처럼 오렌지를 게걸스레 먹어치우는” 모습이었다(Lea, 1909: 269, 307; Bywater, 1925: 97; Sackman, 2005: 295, 125, 143-58, 295).

미-일 전쟁의 가장 유명한 시나리오인 헥터 바이워터(Hector Bywater)가 1925년에 저술한 『태평양의 해양강국: 미-일 해군 문제에 대한 연구(Sea Power in the Pacific: A Study of the American-Japanese Naval Problem)』였다. 그는 전쟁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대한 일본의 공격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했고, (진주만까지는 아니더라도 1941년 필리핀과 괌에 대한 일본 공격의 몇몇 측면을 예감했다는 점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 바이워터는 일본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핀, 미드웨이, 웨이크 군도에 해군 기지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만큼은 그가 진정으로 전쟁과 그 여파에 대해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만 공격을 기획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제독은 젊은 나이에 해군 담당관으로 워싱턴에 있을 당시 바이워터의 이 책을 정독한 후 본국에 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전쟁은 백인 대 황인, 앵글로-색슨 대 일본 사무라이 간의 “인종 전쟁”이 될 것이었다. 특히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원수는 인종 간의 종말론적 충돌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좋아했다(Bywater, 1925: 97).³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보다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은 양국 해군이 언젠가는 서로 태평양에서 적이 되리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작전을 짜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해군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 페리의 방문 이후 그 무엇보다 일본인들의 열정을 끌어오르게 했던

³ 야마가타의 인종관에 대해서는 Dickinson(1999: 43-44) 참고.

것이 근대 해군 기술이었던 것 같다. 1866년에 일본은 이미 최초의 증기 전함을 건조했고 5년 후에는 도고 제독이 열한 명의 해군 사관생도들과 함께 영국에서의 유학을 시작했다. 다음 반세기 동안 일본은 영국의 경험을 본받아 해군을 창설했고 영국의 조선소에서 여러 척의 전함을 인수했다. 해군 장교들은 영국인들의 문하에서 그들의 기술, 태도, 나아가 제복 스타일까지 배웠다.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일본제국 육군의 아버지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1907년에 이르러 국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개의 육군 사단과 (8척의 전함과 8척의 중순양함으로 이루어진) “8-8” 구성에 따라 두 개의 전함대를 편성하여 그 중 1개 함대는 “태평양의 건너편 해안”을 감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1909년 미국의 해군 전략가들은 마침내 진주만을 (“태평양을 통제할” 함대가 주둔할 수 있는) 태평양의 주요 미군 기지로 삼기로 결정했고, 하워드 태프트(Howard Taft) 대통령의 해군총참모부(General Board)는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1911년 3월 총참모부는 상세한 “오렌지 계획(Orange Plan)”을 도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프트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행동 양식의 첫발을 내디뎠다. 즉, (태프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리처드 닉슨이 잘 보여주었듯이) 이따금 “중국 우선” 정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앞선 기술과 선진 산업 기반을 가진 일본이 동아시아에서는 더 중요한 강대국이라는 냉엄한 현실로 되돌아가는 미국 외교의 모습 말이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1911년과 1923년 사이에 14척의 주력함을 건조했다. 한편 미국은 그 사이 17척을 건조했다. 이런 군비 경쟁은 하딩 행정부가 들어서고, 1922년에 개최한 워싱턴 해군 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불평등한 제약을 가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회의의 결과 일본은 31만 5,000톤 해군이 된 반면, 미국과 영국은 52만 5,000톤의 배수량을 얻어냈다. 이런 결과에 일본의 군부는 적잖이 당혹스러워했고 그와 거의 동시에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Reckner, 1988: 113-14, 119; Dickinson, 1999: 27-28, 73; Evans and Peattie, 1997: 153, 194-195, 201).⁴ 일본이

4 1907년 이래 일본의 대미 전쟁 계획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Evans and Peattie(1997: 187-89) 참고.

영국과 맺은 동맹 역시 이 시기에 끝나면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 모두에게 이류, 하급 동맹 취급을 받는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물론 1920년대에도 일본은 태평양에서의 현상을 타파하는 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2인자로서의 일본이라는 이런 행동 패턴은 1902년에 시작되었고 1930년대까지도 지속되었지만 마침내 무너지면서 일본은 태평양에서 단독 지배를 추구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다시 이런 행동 양식으로 복귀했다. 다만 21세기에 접어든 시점까지도 일본의 2등 지위는 군사가 아닌 경제 영역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차이였다.

III. 태평양 패권을 노리는 일본

1931년 9월 만주로도 알려진 중국의 동북 3성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저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국내 정치를 군국주의로 몰아갔고 마침내 군부가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 영미에 대한 일본의 협력이 끝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었다. 물론 영국과 미국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만주에서 교역을 계속하고 있었고 일본도 (자동차, 트럭, 기관차, 철로용 강철 등) 미국의 기술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1930년대 후반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다.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만주국 정권에 대해 싸우면서 펼친 게릴라 전술은 결국 북한을 세운 지도자들의 산실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만주의 산업이 흥하면서 곧 두 자리 숫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1931년이 되면서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근대 일본의 독특하고도 집요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6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이 시기 역시 일탈이었음이 분명하다. 즉, 하위 협력자(junior partner)라는 조건 하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일본의 전반적인 행동양식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짧은 중단 기간이었던 것이다.

워싱턴의 지도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선호하지만, 미국인들은 우방이든 아니든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예외가 있다면 미국이 정보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앵글로-색슨 동지들, 즉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다. 1901년에는 『일본과의 임박한 전쟁(The Coming War with Japan)』, 2006년에는 『중국과의 임박한 전쟁(The Coming War with China)』이라는 책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이 전적으로 사실이었고 미국인들은 지체 없이 호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열정에 불을 지폈다.

2002년 책 『시차(Parallax Visions)』에서 나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45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기본 구조 차원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조차 미-일 관계의 담론이 왜 그토록 쉽게 경외감에서 증오로 바뀌는지를 해명하고자 했다. 나는 특정 유형의 고고학과 계보학이 역사를 발굴해내고 담론과 현실을 연결하도록, 다르게 말하자면, 사상이라는 상부 구조와 세계 체제 또는 산업 구조를 연결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나는 역사를 ‘계통’으로 역사의 급격한 동요는 ‘생성’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논지로 니체를 인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는 일본이 20년 전에 아무리 패권적 생성에 근접해 있었다고는 해도 (사실 나는 별로 근접했었다고 생각지 않지만), 20세기를 통틀어, 그리고 21세기의 14년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결국 미국 패권 하의 양자적 관계 혹은 영-미나 미-영 패권 하의 삼자 관계 속에서 종속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주만 사건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이 드러난) 미드웨이 전투에 이르는 6개월, 혹은 일본의 능동적 행동 반경을 더 많이 인정하고 싶다면 1941년 여름부터 1945년 여름까지 4년간이 예외적인 기간일 뿐이다.

내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이런 지위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옳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 경쟁의 담론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유 때문이었다. 수십 년간 패권 구조망 속에서 꾸준히 번영해온 일본은 그럼에도 세 가지 결정적이고도 비교 불가능한 시점에서 서구인들의 정신 속에 “생성”된다. 그 세 시점이란,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일본이 영국의 ‘신동(wunderkind)’이자 독일과 러시아에게는 “황화(Yellow Peril)”이었던 시기, 영국에게는 산업적 괴물(이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에게는 ‘신동’이었던) 1930년 세계 대공황 시기, 그리고 미국의 국제주의자들에게는 ‘신동’이었으며 미국의 보호주의자들에게는 괴물이었던 1980년대이다. 1900년에서 2014년의 기간에 대한 우리의 은유법이 여기에서 등장한다. 바로 “2등으로서의 일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더 정확히 말하자면 1922년에 미국은 동북아의 삼각 패권 속에서 주요 협력자로 등장했다. 이 시기는 미국은 행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영-일 동맹은 누더기가 되었고 미국은 일본의 외교에서 영국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워싱턴 회의는 바로 미국 해군이라는 지구적 군사력 투사의 핵심적 요소가 확고한 자리를 잡으면서 바통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워싱턴 해군 체제는 미국과 영국이 해군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이 함께 협력하여 중국을 동아시아 체제에서 종속적 행위자로 남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3자적이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중국의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않던) 국가적 통합을 보존하자는 미국의 수사는 되풀이되었다.

일본은 1920년대 내내 저자세 외교로 이런 흐름에 순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일본은 무역 경쟁을 위해 국내 기반을 다지면서 오늘날까지도 두드러지는 정치경제적 경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지금은 “수출주도형 발전”이라고 명명된 것의 초기 형태가 이때 나타난 것이다. 존슨(Johnson, 1982)과 플레처(1989)는 일본의 국가 산업 전략과 “행정 지도(administrative guidance)”의 기원을 공히 1920년대 중후반으로 잡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일본의 후발 정치경제 전략에 대체로 수용적이었다. (이 전략이 미국에게 문제로 여겨졌던 것은 1939~1945년 시기와 1980~1990년대뿐이다.) 일본은 신중하게 수출을 비식민 반주변부(semi-periphery) 지역에 치중했다. 물론 미국과 영국의 식민지는 제외되었고 그들의 핵심 시장도 당연히 피해야 했다. 1920년대는 또한 수출 프로그램과 연계된 수입대체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물론 이 전략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본이 중공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 생산 주기에 장인적 기교를 발휘하기 시작한 1930년대였다.

이 모든 것의 결과, 세계 대공황과 위축된 세계 무역 속에서도 일본의 총수출은 1932~1937년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을 휩쓰는 것처럼” 보였다. 방적사, 직물류, 완구류, 철강류가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1935년에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때에도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였던 반면 일본은 고작 3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무역 상대국들은 일본의 수출에 유독 집착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미리엄 팔리

(Miriam Farley)는 일본의 잘못된 관측이 아니라 다만 “산업화의 세기를 잘못 골랐던 것”이 문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936년에 이르면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일본의 수출 흐름을 차단했고 그럼에도 일본 기업 집단들은 여전히 “미국인들의 만주 투자 유치에 애썼으며” 이런 추세는 193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에 미국의 직물업계는 “일본에 대한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에 제한을 가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진다.

1941~1945년 사이의 결정적 기간에 대해, 이리에 아키라(Akira Iriye)는 일본 군부가 (소련이라는 외부 조건에 깊은 영향을 받아) 1941년 중반에 “납전”을 결정하기 전까지 일본은 미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1920년대 초반에 일어난 변화를 깔끔하게 요약하며) 미국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전후 국제관계의 열쇠는 1920년대에 걸쳐 세계 경제 체제를 지탱한 미국의 자본, 기술, 상품이다. 미국은 세계 금융, 상업, 정치의 중심이었다.

1941년 7월 미국은 일본에 대한 유류 금수조치를 취하면서 패권의 경계선을 긋는다. 이는 일본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일본 지도자들은 유일한 대안은 전쟁뿐이라고 마음먹게 되었다.

전쟁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1차 대전 동안 일본은 전쟁 특수와 수출 3배 급증을 누리는 교활한 자칼이었지만 1920년대에 일본이 경기 침체에 들어서고 자유무역 정책을 추구하면서는 자유주의 제도로 칭송을 받았다.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는 근대화 이론가들에게는 메이지 유신의 성공담이 진화적으로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였다. (이는 이후 1936~1945년간 군국주의라는 10년간의 일탈로 손상된다.)⁵ 1920년대가 일본의 발전에서 예외였던 정상이었던, 일본의 선량한 이미지가 누구의 수출도 저해하지 않고 미국, 영국, 일본이 (태평양에서의 균형 비율을 의미하지만 나머지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5:5:3의 완벽한 삼각공식으로 정의된 1920년대의 국제체제

⁵ Dower(1975)에서 John W. Dower의 도입부 글 참고.

를 목인하던 매우 선량한 일본의 모습과 부합한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중반 세계가 공황에 빠지고 보호주의적 관세가 만연하며, 일본이 중공업 산업화를 개시하던 시기에 “일본”은 큰 골칫거리였다. 헨리 스티imson(Henry Stimson, 1936: 8-9, passim)과 같은 자유주의 국제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한 근원적 친밀함이라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유무역 체제를 벗어나 만주에서 방종을 일삼으면서 “문호 개방”을 파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1935년에 (당시에는) 반어적인 제목이었지만 결국 미래를 예지한 책이 된 『일본산(Made in Japan)』을 썼던 귄터 슈타인(Günther Stein)은 일본이 관세 장벽이 없다면 “단시간 내에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 효율성의 본보기라고 보았다. 슈타인(1935: 188, 191, 205)은 1930년대 중반의 중공업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세계 산업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제대로 포착했다. 일본의 문제는 일본이 세계 체제의 균형을 흔들었다는 점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 대해 불평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1930년대 중반의 급격한 정책 변경이, 1868년 이후에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혹독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정당화되었다.

[우리] 계획경제의 주목적은 국가의 완전한 산업화를 통한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경쟁이다. 본질적으로 경제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삶의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 정책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계의 전반적 경향이기도 하다. [이는] 파시스트 정권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⁶

당시에는 또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의 상징이 되었던 닷선(Datsun) 승용차도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오랫동안 포드(Ford), 세보레(Chevrolet) 및 기타 미제 자동차가 지배하던 일본 자동차 시장에 등장했다.”⁷

⁶ *Asahi Shimbun*, “Present-Day Nippon” (Tokyo, 1936: 23).

⁷ *Asahi Shimbun*, “Present-Day Nippon” (Tokyo, 1936: 119).

물론 1930년대 후반에 점차 커지던 일본에 대한 거친 이미지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더불어 순수한 인종차별주의로 변모했다. 1941년 잡지 『라이프 매거진(Life Magazine)』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놈(Jap)들에 대한 만화 같은 묘사는 모두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 갑작스런 일요일 전까지 일본놈들은 기름지고 땅딸막한, 친절하지만 믿을 수 없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웃긴 사람이었다.” 같은 날(12월 22일) 『타임(Time)』지 기사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을 표지에 실으면서 그의 얼굴을 썩은 레몬빛으로 칠하고 독자들에게 “일본놈(Japs)”을 “중국 사람(Chinamen)”과 구분하는 요령을 알려주었다(Steiner, 1943).

20세기 전반에 나타난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상반된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 체제 내에서의 격한 산업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 비해 꾸준히 기술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대개 간과한 채 인종주의적인 선입견 속에 빠진 채 일어난 갈등이기도 했다. 『도덕의 계보(The Genealogy of Morals)』에서 니체(Nietzsche, 1969: 15-23, 77-78)는 세계의 배후에 있는 도덕의 기원을 찾는 노력은 중단하고 대신 세계 ‘속’에서 기원을 찾으려 했다고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물의 기원의 원인과 그 궁극적 쓸모, 실제적 활용, 목적의 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천양지차이다. 어떤 이유로든 존재하게 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 거듭 재해석된다.

니체는 어떤 것의 “진화(evolution)”란 “결코 목표를 향한 “진전(*progressus*)”이 아니라고 말한다. “진보(*progress*)”나 “목적(*purpose*)”이란 단어들은 어떤 주체가 역사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표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항상 “이전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필연적으로 흐려지고 심지어 말소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해석”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해석의 지속적인 기호-연쇄(*sign-chain*)”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그것은 그들이 “진보”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신 격하게 변동하는 해석들이 기호 연쇄, 도덕의 원자가(原子價, *valence*)의 계보로 기능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가만히 있다.” 혹은 그들이 서구와의 경쟁에 참여한 이래로 그들이 늘 해왔던 것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서양의 인식이 부침함에 따라 변신한다.

푸코(Foucault, 1977)는 “니체, 계보, 역사(Nietzsche, Genealogy, History)”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니체의 논지를 이어받았다. 계보는 “기원(origin)’의 탐색을 거부한다.” 역사가에게 기원이란 “이미 있었던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마치 인간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없이 그저 “발견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역사적 진실이 있는 장소, 진정한 “기원”이 있는 장소는 “불가피한 상실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 담론이 혼란을 야기하고 마침내 길을 잃어버리는, 명료함이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장소에 있다.”라고 푸코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을 인용하며 말한다. 계보학적 기법은 “심층까지 발굴하며” “이런 요소들이 어떤 진실도 그런 요소들을 구속하지 못했던 미궁에서 벗어날 때까지 시간을 준다.” 그리고 역사는

발전의 구체적 실체로서 강렬한 순간들과 시간의 경과, 장기간의 열렬한 선동, 희미해지는 주문(呪文)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형이상학자만이 기원의 그윽한 이상형 속에서 그 정신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과 중국에 대한 변화하는 관점은 인간성이 가하는 제약과 우왕좌왕 속에서 일어나는 담론인 것이다. 그들의 “역사”는 미국이 존경할 만한 일본인이나 중국의 성공, 혹은 다시 찾은 힘을 환영하는 “열렬한 선동”과 “희미해지는 주문들” 속에 있다.

푸코는 나아가 독일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단어인 계보(*herkunft*)가 “자손”이나 “계통” 이상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계통의 조사는 “특질이나 개념의 독특한 성질 하에서 무수한 사건들을 통한 그 형성과정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계보학의 의무는 과거가 이미 결정된 형태나 어떤 필수적 인과율을 통해 능동적으로 현재에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진화가 아니며 민족의 운명이 나아갈 길을 펼쳐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계통의 복잡한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과거의 흘러가는 사건들이 원래 속성에 따라 분산되는 사이에 그것을 붙잡아두는 일(강조는 추가이다).” 니체는 또한 “생성(*entstehu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발현의 원리와 독특한 법칙”을 설명했다. 비록 어떤 경향의 정점처럼 보

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통은 단절 없는 연속이 아니며 생성도 “역사적 발전의 최종 상태”가 아니다. “정점(culmination)”은 “일련의 연속 안에서 일어나는 최근 사건들에 불과”하며 따라서 “생성은 여러 힘의 개입이며 그 힘의 분출이고 가장자리에서 무대 중심으로의 도약이다. 생성은 대결이 일어나는 장소를 지정한다(강조는 추가). 생성은 결정, 조약, 전쟁이 아니라 “여러 힘 간의 관계의 역전, 힘의 찬탈, 한때 그 어휘를 사용했던 자들에 대항하여 그 어휘를 전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체현[또는 역사 또는 계통]은 수많은 서로 다른 정권에 의해 그 틀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생성”이란 단순히 역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의 직전 시점, 즉 여태껏 부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부각되고 그럼으로써 재평가의 바탕이 마련되는 순간을 가리킨다. 이는 푸코가 매우 니체적인 공식화를 한 것이지만, 니체는 현상에 긴박감과 무의식의 측면을 더했다. 매킨타이어(MacIntyre, 1990: 35)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인정되지 못한 목적에 봉사하는 인지되지 않은 동기”인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미국식 경제론은 대부분 정확히 이런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인지되지 못한 동기에서 일어난 감정이 인정되지 못한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IV. 영원한 2등으로서의 일본

미일 간에 진정한 적대감이 존재했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짧았는지는 미국의 국무부 내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군(一軍)의 국제주의자들이 1942년 경에 벌써 일본을 다시 전후 미국 패권 체제 하에 통합시키려는 생각을 놀라우리만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 1947년에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일본의 산업 부흥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계획이 머지않아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예전 식민제국적 지위를 수정된 형태로 회복시키자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간명하게 말해서 전후 일본은 세계 경제의 엔진이었으며 미국이 규정한대로 전전의 군사적, 정치적 위력을 거세당한 “경제적 동물”이었다. 이는 냉전의 등장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며 미국이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아시아의 배후지에서 전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일본이 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점차 심화되었다. 트루먼에서 존슨 행정부에 걸친 이 시기에 일본은 미국의 충실한 동반자였으며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 미국도 희희낙락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세계 체제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역량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양강 체제가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잘하면 안 된다. [이러한 역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 바로 1971년 태평양 전쟁 승리일에 발표했으며 일본에서는 “닉슨 쇼크”로 알려진 리처드 닉슨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1990년대에 경제 버블이 터질 때까지 확고하게 이런 양강 체제 틀 속에 있었으며 그러한 사고는 지도층의 무능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일본의 성공에 대한 찬탄과 그 능력에 대한 경계심, 일본의 “버블 경제”의 붕괴에 대한 만족감과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한 경계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따름이었다. 그리고는 도교를 겨냥했던 모든 부정적 비유들은 이제 더 서쪽에 있는 상하이로 옮겨갔다.

1947년에 조지 케넌과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일본의 부활을 위한 전략을 개발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진지한 산업 강대국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일하게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케넌은 일본이 다시 강한 군사대국이 됨으로써 동아시아에 세기 초와 같은 세력 균형을 재현하기를 바랐지만 애치슨은 일본의 산업을 부활시켜 세계 경제의 엔진이자 미국이 규정한 “경제적 동물로서” 미국의 영역에 통합시키되, 전전의 군사적, 경제적 위력은 거세하는 더 영리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냉전의 등장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며 미국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인 덕분에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입으면서 극적으로 심화되었다. 미국 행정부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태평양 방위의 “짐을 함께 질 것을” 원했지만 어떤 군비 확장도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일어날 것이었으므로 일본의 지도자들은 발을 질질 끌면서 마지못해 기어가는 속도로, 국방을 점진적으로 증강하며 재군비를 추진할 따름이었다. 오늘날에도 일본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GNP의 1퍼센트 이하만을 국방에 지출하고 있으며 제2의 도고 제독이 나타나 거대한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제2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핵잠수함을 진수하는 장면을 상상하기

란 여전히 불가능하다. 미일 안보조약의 문구를 빌리자면 이론은 계속해서 미국의 “육, 해, 공 전력의 일본 영토 및 근방에” 항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이 조약은 또한, 한국과 베트남에서처럼,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는 자국군을 자기 선택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Schonberger, 1989: 259, 269).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1945년 8월 15일 (요식적 걸치레만 빼고는 사실상) 일본 점령 과정에서 동맹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38도선에서 분할하고, 베트남을 16도선에서 분할하고, 중국 내의 일본군이 국민당 군에게 항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장제스(蔣介石)의 지도하에 중국이 통일되도록 추구한 일반 명령 1호를 발표했을 때, 미국의 결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유일한 군사적 분단은 중국이었는데 공산당이 1948~1949년에 걸쳐 본토에서 국민당을 소탕하면서 새로운 분단, 즉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단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7함대가 대만해협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었다. 맥아더가 자비로운 황제로서 일본을 통치하는 동안, 한국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분단 구도를 대단히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요새화된 비무장지대가 38도선을 대신했고 오늘날까지도 이제는 끝난 세계적 냉전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남아있다. 한 세대 동안 중국은 내부의 급진주의와 미국의 봉쇄 및 전쟁 위협 때문에 전후 국제 체제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미국의 군사기지로 이어진 열도(列島, archipelago)가 북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해준 강압적 구조를 이루면서 동맹국들에 대해 산발적이지만 가시적인 영향력을 제공했다. 미국은 서유럽에서도 각지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었다. 차이점이라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나토(NATO)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도 일본인이나 한국인, 필리핀인 혹은 대만의 중국인들이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미국은 대체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동아시아에서 미제국의 열도(U.S. archipelago of empire)는 진주만 공습 이전 반세기를 지배했던 일본과 미국 간의 태평양 경쟁 구도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산물이었던 이 광대한 군사기지 구조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듯이 지금 새로운 세기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가 낳은 장기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비공산권 국가들이 미국을 통하여 서로와 교류하는 축과 바퀴살(hub-and-spoke) 형태의 비대칭적 체제로서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과의) 양자 방위 조약으로 공고화되고 4개국 외무부의 위에 국무부가 서 있는 수직적 레짐이었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서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은자의 왕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중국은 대만이나 한국과 대화하지 않았고, 남북한 간에는 개인적인 서신조차 교류되지 않았으며, 남북한은 모두 일본을 증오했고 일본의 외교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보였지만 자신의 “근린(near abroad)”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각국은 (한국군의 작전권, 대만해협에서 7함대의 순찰, 4개국에서의 국방 의존도, 각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와 같은) 미국의 군사 구조가 깊이 침투한 상태의 준-주권국가가 되었고, 독자적 외교정책이나 국방 기획 따위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체제의 유일한 균열은 중국의 부상이었다고, 이는 대만이 미국의 다른 걱정거리에 비하면 사소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 역시 중국의 지도부가 했던 어떤 것만큼이나 리처드 닉슨의 대중국 개방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닉슨, 키신저, 카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대만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내팽개쳤다. 물론 일본의 지도자들은, 독일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인근 국가에 대한 자국의 침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의 지속적인 분단 상태에 일조해왔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과 그 정책이 지원한 일본 지도자들, 그리고 1940년대 후반에 일본이 얻어낸 바로 그 ‘고요한 평화’가 조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후 합의는 동아시아가 왜 유럽에 비해 오늘날 다자적 제도와 협력 및 화합 기제가 훨씬 적은지, 냉전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더 적었는지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기제로 남아있다. 나토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한때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가 있었지만 한 번도 큰 의미는 없었고, 결코 동북아시아조약기구(NATO)를 낳지도 못했으며 20년이 지나고 수명을 다했다. 1947년 이후 한국과 대만을 원조했던 경제협력관리기구(ECA)라는 마셜 플랜(Marshall Plan)의 아류가 있기는 했다. 유럽의 마셜 플랜처럼 경제협력관리기구는 선진 산업 국가들의 부활로 대체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단 한 국가, 즉 일본이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요원했으며, 이론적으로는 모두를 포괄하는 국제연합(UN)은 동아시아

에서는 사실상 미국이 운영하는 기구였다. (마치 시대착오라거나 심지어 격세유전이 대세인 듯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여전히 1950년 UN군 사령부의 깃발 아래에 있다.) 동남아시아에는 아세안(ASEAN), 아-태경제공동체(APEC), 아시아지역포럼(ARF)과 같이 어느 정도의 국제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 어느 기구도 미군의 1개 항모전단에 맞먹는 힘과 영향력을 투사하지 못하며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상호 존중과 끝날 줄 모르는 협의, 그리고 (심지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인권 악몽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각국의 상황에 불간섭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다. 이 지역의 경제적 역량을 고려할 때 금융, 통화, 경제 영역과 같이 다자적 기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협력은 “유럽 기준에서 보면 극도로 제한적이다(Katzenstein, 2005: 35, 136-137, 219-220). 여기에서도 미국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1970년대 이후 중국의 개방은 이 지역의 경제력이 냉전의 경계를 잠식하고 우회하면서 예전의 적수가 다시 접촉-다만 다자적 제도가 아니라 주로 사업 교류나 대중문화를 통해서-하게 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 냉전의 첫 국면은 안보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면서 지역을 분단시켰고, 두 번째 국면은 경제발전과 지역통합의 가속화가 우위를 점하는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압력도 변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크게 작용했음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V. 동아시아의 고양이 길들이기

회의 주최자들이 관점을 1894년에서 2014년까지 넓혔으므로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자. 2차 대전 이후 몇 년 사이에 형성된 미국의 태평양 권력의 기본 구조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한국이나 중국 혹은 다른 누구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또한 제3해병대 사단과 오키나와 섬의 거대한 가네다(嘉手納) 공군기지, 그리고 요코스카(横須賀)의 7함대 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백 개의 군사기지, 그리고 지구 표면의 52%를 담당한다고 자랑하는 호놀룰루의 태평양지구사

령부(CINCPAC), 1979년 이후 중국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켰던 호혜적 무역과 발전에 대한 강한 편향 등이 있다. 한마디로, 비록 점차 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소하고 때로는 자멸적인 중국의 도전 속에서 여전히 미국의 역내 패권은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군 기지의 역사는, 미군이 진주만 이전 반세기 동안 지속된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경쟁관계를 무력화시킨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유례가 없는 장수는 또한 격세유전과 시대착오의 반영이기도 하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부산물이었던 이 기지들은 마치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듯이 이 세기에도 끈질기게 남아있다. 일본에는 5만 명, 한국에는 2만 8,000명, 유럽에는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1989년 이후 냉전 권력 구조가 붕괴하면서 세계 각지에 갈등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한탄하면서(New York Times, July 13, 2014),⁸ 정작 실제로 붕괴한 단 하나의 구조, 즉 소련 제국은 간과하고 있다. 반면 미 국방부는 1989년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2001년 9월 11일 이후로는 세계 전역에,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구소련의 기지에 제국의 열도(archipelago of empire)를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남쪽, 중국의 서쪽 국경에 처음으로 미국의 힘을 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냉전기의 영향력은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선진 산업 국가들 간의 국제적, 군사적 안정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는 역사 문제, 특히 일본 지도자들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벌였던 범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1945년 이후 일어난 갈등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을, 베트남은 일본을, 일본은 한국을 싫어한다. 그리고 모두가 북한을 싫어한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경험도 없는 대통령이 들어온다. (물론 어린 시절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지만 동남아시아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아마도 별반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며 이 러니저러니 해도 외교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가 바로 버락 오바마(Barack

⁸ “The World According to Maxwell Smart,” *New York Times* (July 13, 2014), Op-ed page.

Obama)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오바마 독트린 같은 것은 없으며 지역적으로는 2009년 이후 그의 동아시아 정책에 일어난 미미한 움직임을 가리키는 “오바마 피벗(Obama Pivot)” 같은 것도 실제로는 없다. 그리고 그가 퇴임하기 전까지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희망도 거의 없다. 대신 오바마는 (워싱턴 정계 내에서) 실전에서 검증되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내부인들에 의존해서 동아시아 정책을 세워왔는데 이들은 어떤 대통령, 어느 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당파를 초월해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을 펼친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넬슨 리포트(Nelson Report)」라고 알려진 다양한 정보가 담긴 일간 블로그다.] 스스로도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핵심적인 워싱턴 엘리트 출신인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국무장관이었다.

오바마가 2009년에 취임했을 때, 큰 문제 하나와 작은 문제 하나와 분명한 해결책 하나가 있었다. 큰 문제는 중국의 부상이었는데 이는 지구적 경제 교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저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동맹 우산 하에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작은 문제는 워싱턴 지도층이 보기에 한국은 김대중 정부(1998~2003)와 특히 노무현 정부(2003~2008) 기간 동안 “반미감정”을 분출했다는 것이었다. 전직 현대 임원이자 독재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예전 좋은 시절(1948~1987) 동안의 친밀한 한-미 관계를 향수했던 이명박 대통령(2008~2013)을 통해 행운의 여신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박근혜가 2012년에 당선되면서 더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아베 총리도 다시금 집권했고 워싱턴의 훌륭한 계획은 꼬이기 시작했다.

족보를 들춰보기 좋아하는 이들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1930년대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던 시절에 아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의 반란을 주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손자인 김정은과 아베가 충돌 일로에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또 다른 풍파를 일으켰는데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일본 황군의 장교로서 또한 만주국에 있었으며, 기시와 함께 아직도 논쟁거리인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를 공모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기시를 A급 전범으로 지명했으나 전후 기간 중에 금세 지난 일은 묻어버리고 그를 훌륭한 반

공주의자이자 근대화의 기수로 칭송했다. (그는 실제로도 반공주의자이기는 했지만 이런 복권은 대체적으로 CIA의 작품이었다.) 또 미국은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고위 정치라는 명목으로 거의 40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 지배(1910~1945)에서 비롯된 한국인들의 증오와 원한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194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지난 일은 잊고 전설적인 미-일 동맹 아래 단결하자고 다그쳐왔다. 언제나 현실을 부정하며 처음에는 일제에, 다음에는 미국인들과 협조한 한국의 엘리트층을 미국이 지원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국의 학술연구자들은 이런 지배층의 압도적인 영향이 1990년대까지도 있었음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20세기 역사의 이런 측면을 포함한 여러 면들 때문에 대통령이 친일이 아닌지 의심하는 유권자들과 대통령이 아베, 나아가서는 일본을 좋아해주고, 그럼으로써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놓인 한국 대통령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라는 워싱턴과 도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와 측근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비난하며, 특히 압도적 다수가 한국인이었던 (“위안부”라고도 하는) 전시 성노예 문제에 관한 추악한 과거사를 솔직하고, 진실되게 다루기를 계속 꺼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아베나 김정은과는 대화하지 않고 다만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 주석도 아베나 김정은과는 대화하지 않으려 하지만 박 대통령과는 대화를 하고자 한다(그 결과, 아무도 김일성의 손자와는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아마도 김정은에게는 매우 근심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런 외교 양상, 더 정확히 말해 외교의 부재는 오바마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08년 선거에서 그의 상대였던 밋 롬니(Mitt Romney)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와 특히 아마도 다음 대통령이 될 힐러리 클린턴은 센카쿠/다오위다오(尖閣/釣魚島) 문제에서 무심코 일본 편을 들었고, 그러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다시 한 번, 미국에게는 일본이 1등이고 우선임을 보여주었다. 수 세기 동안 일본이나 오키나와가 아니라 대만과 더 긴밀히 연관되어 있던 이 섬은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일본의 승리 이후 전리품으로 일본이 차지했고 대만 식민화의 일부이기도 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이 섬들은 오키나와 관할이 되었고, 오키나와는 1972년까지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했다. 오키나와 반환 중에 미국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주장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문제가 관련 당사자들 (일본과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했던 대만이 될 것이다.) 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섬의 ‘행정권’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반환은 닉슨과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버릴 모의를 하고 있던 중에 진행되었고, 그래서 키신저는 이러한 대국적 논리에 집중하면서 “섬을 일본에게 주는 것이므로 이런 공식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그는 미국이 좀 더 중립적인 입장, 아마도 중국에게 털 거슬리는 입장을 찾기를 바랐다. 키신저가 옳았다. 그 이후, 일본은 마치 소유권 분쟁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2012년 9월에 작은 군도 중 세 개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했다(*The Asia-Pacific Journal*, January 13, 2014).⁹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이 형성했고 1945년 이래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지배해온 이런 유기적이고 구조적인 관계를 이해하면, 간헐적인 폭발(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소화불량의 요소들(남사군도와 서사군도, 센카쿠/다오위다오), [2위로서의 일본, 한 번 분할되고 다시 분할된 한국, 기시(岸信)에서 아베로,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분명한 계통의 연속선, 그리고 (1890년대, 1940년대, 1980년대의 일본과 현재 중국과 같은) *생성*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지만, 미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위협한다거나 *가장자리*로부터 *무대 중앙*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신호는 없다. 1945년 이래 일본을 현재 상태대로, 한국을 분단된 채로, 중국을 봉쇄된 상태로 두고자 하는 미국의 근본적 선호는 항구적인 변화는 고사하고, 아직 대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낡은 낡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투고일: 2014년 11월 19일 | 심사일: 2015년 1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12일

⁹ Yabuki Susumu and Mark Selden, “The Origins of the Senkaku/Diaoyu Dispute between China, Taiwan and Japan,”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2, Issue 2, No. 3, January 13, 2014)

참고문헌

- Beale, Howard. 1956. *Theodore Roosevelt and the Rise of America to World Pow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ryant, Samuel W. 1947. *The Sea and the States: A Maritim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 Bywater, Hector. 1925. *The Great Pacific War: A History of the American-Japanese Campaign of 1931~1933*. Bedford, Mass.: Applewood Books reprint.
- Dickinson, Frederick R. 1999. *War and National Reinvention: Japan in the Great War, 1914~1919*.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ower, John W. 1975. *Introduction, in Dower, ed., Origins of the Modern Japanese State: Selected Writings of E. H. Norman*. New York: Pantheon.
- Evans, Daniel C. and Mark R. Peattie. 1997.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 Fletcher, William Miles III. 1989. *The Japanese Business Community and National Trade Policy, 1920~1942*.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oucault, Michel. 1977.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trans. by Donald F. Bouchard and Sherry Simon.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Healy, David. 1970. *U.S. Expansionism: The Imperialist Urge in the 1890s*. Madison, Wi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Iriye, Akira. 1967. *Across the Pacific: An Inner Histor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_____. 1972. *Pacific Estrangement: Japanese and American Expansion, 1897~191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tzenstein, Peter. 200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LaFeber, Walter. 1989. *The American Ag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t Home and Abroad since 175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_____. 1963. *The New Empire: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Expansion, 1860~1898*.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Lea, Homer. 1909. *The Valor of Ignorance*. New York: Harper & Brothers.
- Limerick, Patricia Nelson. 1987. *The Legacy of Conquest: The Unbroken Past of the American Wes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Linderman, Gerald F. 1974. *The Mirror of War: American Society and the Spanish-American War*. Ann Arbor, Mich.: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cIntyre, Alasdair. 1990. *Three Rival Versions of Moral Enquiry: Encyclopaedia, Genealogy, and Tradition*. South Be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cCormick, Thomas J. 1967. *China Market: America's Quest for Informal Empire, 1893~1901*. Chicago: Quadrangle Books.
- Mitani, Hiroshi. 2006. *Escape From Impasse: The Decision to Open Japan*. Translated by David Noble. Tokyo: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 Musicant, Ivan. 1998. *Empire by Default: The Spanish-American War and the Dawn of the American Centur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Nietzsche, Friedrich. 1969. *On the Genealogy of Morals, ed. and trans. by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 Perry, Commodore M. C. 2000. *Narrative of the Expediti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1852~1854*. Ed. Francis L. Hawks. Washington, D.C.: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856; Dover Publications Reprint.
- Reckner, James R. 1988. *Teddy Roosevelt's Great White Fleet*.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 Sackman, Douglas Cazaux. 2005. *Orange Empire: California and the Fruits of Ed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xton, Alexander. 1971. *The Indispensable Enemy: Labor and the Anti-Chinese Movement 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onberger, Howard. 1989. *Aftermath of War: Americans and the Remaking of Japan, 1945~1952*.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Slotkin, Richard. 1998. *Gunfighter Nation: The Myth of the Frontier in Twentieth-Century America*. Norman,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tein, Günther. 1935. *Made in Japan*. London: Methuen & Co. Ltd.
- Stimson, Henry. 1936. *The Far Eastern Crisi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Wiebe, Robert H. 1967. *The Search for Order, 1877~1920*. New York: Hill and Wang.
- Young, Marilyn Blatt. 1968. *The Rhetoric of Empire: American China Policy, 1895~190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Japan as Number One (or Two): The American Preference for Japan in the East Asian Order, 1894~2014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ted States view of Japan's role in the region has been consistent during the past 150 years. Japan accepted the West-dominated international order and its role as a second Japan until the 1930s. Japan during the Pacific War was an exception. To the eyes of the Westerners, view of Japan has been incessantly reinterpreted and reconstituted. After the end of the Pacific War, a friendly US-Japan relationship was recovered by the arrival of the Cold War in Asia while multilateralism was fragile. The US-centered asymmetrical relations in East Asia including the US-Japan relation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by historical and territorial problems. Problems with the United States today concern its inability and ignorance of the need for revising the existing order. It is likely that the country will not be able to realize its will of maintaining Japan's status as a second Japan in the region where inter-state relations have become aggravated with history issues.

Keywords | US-Japan relations, the Pacific Ocean, hegemony, naval power,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Nietzsche, Foucault, *herkunft* (genealogy), *entstehung* (emergence), alliance, history disputes

